

빛나는 광양의 밤, 감성·낭만의 야경 명소로 뜬다

선사인 해변공원 사업 착공...달빛·별빛구간 등 야간경관 조성
5대 교량과 9.4km 해변에 미디어파사드 등 연출...5월 말 준공

"2020년, 광양의 밤에 감성과 낭만이 흐르는 환상적인 빛의 심포니가 펼쳐진다." 광양시가 광양해비치로사업의 일환인 선사인 해변공원(야간경관조명) 사업을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관조명의 건설은 광양(光陽)의 지명에 걸맞게 자연의 빛인 달, 별, 불을 조형하고 영상과 음향을 미디어파사드 등으로 연출하는 것으로 오는 5월 말에 준공된다.

사업구간은 해비치로 내 5대 교량(이순신대교 접속부, 마동-금호IC접속교, 길호대교, 금호대교)과 9.4km 구간의 해변이다.

이순신대교 접속부에서 길호대교까지는 '달빛구간'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달을 모티브로 풍요와 신비로움을 표현하고 마

동IC접속교에서 무지개다리까지는 '별빛구간'으로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을 표현해 아스라한 추억을 연출한다.

또 무지개다리에서 금호대교까지의 '불빛구간'은 강렬하고 열정적인 불을 모티브로 변화와 도약을 구현한다.

해변 기존 가로등에도 각 구간 컨셉과 어울리도록 LED BAR를 설치해 빛의 연속성과 통일감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빛의 송출 각도를 조절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고, 빛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는 주요 조망점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미 설치된 무지개다리와 해오름 육교의 조명까지 일괄 제어하는 시스템은 광양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시간대별로 표

출해 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 밤 일정 시간대 음악과 함께 펼쳐질 조명소는 야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해비치로 사업의 핵심이 될 이번 경관조명이 완성되면 광양의 밤이 더 밝고 아름답게 변모되면서 경쟁력 있는 국내 야경명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차별화된 야경 콘텐츠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음식 숙박 등을 보충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해비치로 조성사업은 해양공원-금호대교-이순신대교 9.4km 해안도로에 달빛해변, 키네틱 아트광장 등 25개 감성 콘텐츠를 구축해 시민이 일상에서 여가를 향유하고 관광객이 만족하는 매력



광양해비치로 야간경관조명 조감도.

적인 수변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시 관광 역점사업이다.

지난해 10월 광양해비치로 관문인 해오름육교를 준공했으며 마동IC접속교-삼화

섬 일대 1km 달빛해변에 바다감상존, 테마 휴식존, 체험놀이존 등을 조성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포스코 매출·영업이익 감소 속 WTP 제품 첫 1000만t 판매 돌파

기업설명회 개최

포스코가 지난 31일 콘퍼런스룸로 진행된 기업설명회에서 연결 기준 매출액 64조 3668억원, 영업이익 3조 8689억원, 순이익 1조 9826억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대비 0.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0.2% 감소하며 영업이익률은 6.0%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요산업 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판매 여건 및 철광석, 석탄 등 원료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전년대비 40만t 늘어난 3599만t을 판매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인 WTP(월드클래스 프리미엄) 제품의 사상 첫 1000만t 판매 돌파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안타가스 전 생산·판매 호조에 따른 최대 영업이익 달성, 포스코에너지의 LNG직도입, 연

료전지 구조개편으로 인한 영업이익 회복 등 그룹사 실적 개선으로 영업이익 감소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별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0.9%, 32.1% 감소한 30조 3735억원, 2조 5864억원을 기록했다.

시장 악화 속에도 재무건전성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9% 포인트 감소한 65.4%로 201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이날 이사회에서 전년 대비 실적은 하락했지만 견조한 연결 순이익 시현에 따라 2018년에 이어 2019년 주당 배당금을 1만원으로 의결하며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포스코는 2020년 시황에 대해 최근 국내 유통가격과 중국, 미국 등 글로벌 철강 가격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15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안 서명이 완료되며 대외적 불안요인이 일부 해소된 것도 시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미래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을 WTP 제품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늘리는 한편, 지역 및 산업별 적정 가격정책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래 신(新)모빌리티 전환 등 수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 대상으로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프리미엄 강건제 제품은 기존 시장과 차별화를 통해 판매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 목표는 63조 8000억원이며 조강생산과 제품판매 목표는 각각 3670만t, 3500만t이다. 철강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부문 육성을 위해 투자비는 6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시니어 인재 양성 프로젝트' 발대식



100여명 정원관리사 등 양성

광양시는 지난 29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기업시민 포스코와 광양시니어클럽이 함께하는 '시니어 인재양성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시니어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8500만원을 후원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양시니어클럽이 협력해 지역 내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재양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광양시는 철강과 향만산업이 주축이 되는 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지역 내 산업구조 특성상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은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달리 65세 이하의 은퇴자를 중심으로 추진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은퇴자들이 인생의 제2막을 열고 지역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원(조경)관리사, 행복동행가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특히 정원(조경)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에는 이론수업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정원관리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김정수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우리 포스코와 연관 기업을 퇴직한 많은 사람에게 인생 제2막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지역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원 광양시 부시장은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삶이 풍족해지고 더불어 우리 광양시의 살림도 더 풍족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중 교통문화지수 1위

광양시가 지난해 인구 30만 미만 49개 지자체 중 교통문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로 평가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운전·보행행태, 교통안전, 18개 평가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는 강원 원주시, 충북 영동군, 광주 남구와 함께 2019년 교통문화수준 1위 지

자체로 선정됐다.

광양시는 18개 평가지표 조사 결과 총 86.61점을 얻어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49곳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여주시는 86.08점으로 2위, 동해시가 86.02점으로 3위에 올랐다.

광양시는 운전행태 50.55점, 보행행태 17.9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횡

단보도 정지선 준수율(91.33%),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97.70%) 및 빗방향지시등 점등률(97.53%) 등의 지표가 높게 나타났다.

광양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교통문화수준이 향상된 결과이다"며 "앞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시민 만족 선진 교통서비스와 스마트 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만권 입주기업 대상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에서는 지난 30일 전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광양만권에 입주한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입주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0년에 처음 개최해 11회째를 맞은 이번 설명회에는 광양청, 전남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중소기업부 전남동부사무소, 전남중소기업진흥원 등 18개 기관이 기업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책자금 지원, 고용 및 인력지원, 기술개발, 수출 및 판로 지원, 행정지원, 사업지원 6개 분야로 나눠졌으며 특히 9개 기관은 시책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평소 관심이 많은 정책자금·인력 분야에 대해서 전남중소기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순천한국폴리텍 V대학,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개별상담을 진행해 참여 기업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학송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장은 "앞으로 더욱 입주기업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예술창고 문화재생 시민지원 프로그램 공모

광양시 문화도시사업단은 (가칭)광양 예술창고 문화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시민지원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올해 6월 준공을 앞둔 광양예술창고는 전남도립미술관과 함께 시민의 휴식과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하게 된다.

시민지원 프로그램의 공모분야는 소규모 지역공공과 함께하는 '소교동(소통, 교류, 동참) 아트살롱' 사업, 직장인 문화충족을 위한 '12시 콘서트' 사업, 시민 스스로 문화예술을 만들어 가는 '신명나는 예술놀이터' 사업이다.

소규모 아트살롱 사업은 총 6개의 공방을 선정해 공방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참가자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맡는다.

12시 콘서트 사업은 총 4개 팀을 선정해 팀별 240만 원을 지원하며, 광양과 중마, 금호권역에서 점심시간에 버스킹 공연을 펼치게 된다.

신명나는 예술놀이터 사업은 총 20개 팀을 선정해 팀별 200만원을 지원해 전시와 공연, 문화과 같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